

“유권자 소중한 선택 어긋나지 않도록 책임정치 펼 것”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가 전주시 갑 선거구 제20대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쥐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3만9,060표(43.30%)를 획득해 3만8,265표(42.4%)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은덕 후보를 79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동안 전주갑은 현역인 김은덕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고 김 후보가 손쉽게 재선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선거는 여론조사에서 앞치락 뒤치락 혼전세를 거듭했다.

특히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출현과 함께 김광수 후보의 비망이 만만찮았다.

같은 운동권 출신인 후보간 대결은 관심대상이었다.

전주갑은 국민의당 경선에서부터 바람몰이가 시작됐고 김광수 후보는 시도의원 시절부터 뛰어난 민심을 끌어안았다.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50~60대 유권자가 많은 것도 도움이 됐다.

전주권 후보들의 합동 유세도 빛을 발했다.

장-장-김 연대카드를 띄우며 ‘연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들에 승부수를 띄웠다.

넘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김은덕 후보의 여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조직력 등 초반 열세를 딛고 역전에 성공했다.

다음은 김광수 당선인과의 일문 일답.

▲당선을 축하한다. 소감 한마디?
어려운 싸움이었다. 지지해 주신 시민과 동지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냈다고 생각한다. 전북 발전에 이바지 하려고 지지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 책임있는 정치를 펼치겠다.

Interview 당선인에게 묻다 · ①전주갑 김 광 수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는 지난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은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광수 후보는 지방의원 시절부터 뛰어난 민심을 끌어안았고 그에 따른 결실을 맺게 됐다.

“열심히 일해 일로서 평가받고 싶다”

“지역민들과 함께 생활정치 펼친 것이 큰 도움 구석구석 돌며 나누었던 진정성도 중요한 요인”

가장 해결해야 할 현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발등의 불’ 책임은 국가가… 해결에 ‘온 힘’ 다할 것”

아쉬운 점은 인물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선거 후반기에 흑색, 비난 선거가 됐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생각했다.

▲이번 총선 승리의 요인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선거결과를 봐도 그렇다. 오만과 독선에 의한 경제 파탄에 대한 국민의 재평가다.

또 지역내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30년간 1당 독재 집권 여당이었고 무능과 무책임 정치를 펼쳤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의 약진이 승리 요인이 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시도위원을 거치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면서 생활 정치를 펼친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며 한 분 한 분 만나서 나누었던 진정성도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다. 한 마디로 서로 나누었던 진정성이 통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지지율 만족하나?
반박이었다. 지지를 만족을 떠나 전주권 모두 1% 내외에서 승부가 갈렸다. 유권자들은 재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은 애가 됐다. 지지를 만족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표심이 직접 결과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 일로서 다시 평가 받고 싶다.

▲출구조사에서 뒤진 것으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이번 출구조사에서 전주갑만 틀리게 나왔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비교적 정확히 결과를 예측해 낸 경우도 여러 있었고 반대로 실제 결과와 동떨어진 출구조사도 적지 않다. 이유는 투표소 마다 지지율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오차범위내라면 지켜보면 되겠다고 여겼다.

▲급하게 생각하는 민생 현안은?
누리과정 예산이 발등의 불이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할한다. 3~5세 아이들을 돌보는 내용은 같은데 법적으로 차이가 있다. 누리과정은 출산율과도 연관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

▲선택해준 유권자들에게 전할 말은?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이 어긋나지 않도록 제대로 책임지는 정치를 펼치겠다. 선거운동 중에 안주하지 말것과 어려운 사람 돕고 보살펴 달라는 등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소중히 새겨 소신을 갖고 지켜나갈 것이다. 또 개별적인 약진이 아닌 국민의당 당선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전북발전을 위한 팀플레이 정치를 하겠다. /신광영 기자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헌신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김제부안 후보)은 14일 오후 2시 김제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가졌다. 김 의원은 “결과는 아쉽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노고



를 서로 위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3월 2일 선거구 조정 이후 김제 유권자 분들과 만날 수 있었던 기간이 비록 43일에 불과하지만, 김제 시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김제·부안, 그리고 새만금의 발전에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제19대 국회 임기 말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아권분별, 선거법 개정 지연, 소지약주 기승, 상대후보의 토론회 거부로 인한 정책선거 부재, 시의원 집단 탈당 등 다수의 약재에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총선 결과 겸허히 수용 전북발전에 힘 쏟겠다”

국민의당 당선자들 “전북이 호남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민주 “당에 대한 애정 버리지 않아… 반성하고 또 반성할 것”
새누리 정운천 당선인 “30년의 긴 지역장벽 견어내”

4.13 총선 결과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은 14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전북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당 당선인들은 “도민들의 투표를 통한 준엄한 명령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전북 정치를 호남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동영 당선인(전주병)은 “7명 당선인 모두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힘이 약하다. 비례대표 3명을 합쳐 10명의 국회의원이 뿔뿔 떨어져 팀플레이를 통해 전북 정치가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성열 당선인(정읍,고창)은 “10석 모두 승리했어야 완벽한 승리였지만 그렇지 못

해 아쉽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도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합당한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전북도민과 당원동지와 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당선인(익산갑)은 “도민들이 더 민주당에 애정을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민주의 호남의 근간이더라도 중앙당이 이런 도민들을 배려하지 못했고 방법적으로 이용한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도민 판단이 옳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 당선인은 “구구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 다시 꽃을 피워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총선 패배 결과와 관

련된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이번 선거는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직을 맞았다. 이는 안주하려는 정당, 국민 마음을 읽지 않는 정당은 바꿀수 있다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전주을)은 “새누리당 후보 선택은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거혁명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은 “전북을 외로운 섬으로 만든 지역 장벽이 있었다. 30년의 긴 긴 지역장벽의 어둠을 뛰어 넘어 주셨다”면서 “이당 의원 열 뿔뿔을 통해 나후전 전북 설움을 풀겠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전북은 동북아중심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탄소산업 등 국책사업들이 계획돼 있다. 이 국책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최경환 ‘무소속당선인복당 묻지마라’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은 14일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 여부에 대해 “나한테(복당 문제를) 묻지 마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마치고 나가면서 복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건 이제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선거 기간엔 당에서 복당 문제를 민감해 하니까 내가 여기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제는 아니다”며 “이제 평의원에게 내가 얘기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내가 있는 한 무소속의 복당은 안 된다’며 무소속 후보들의 복당은 ‘절대 불가’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의 대참패로 20대 총선이 끝나면서 오는 6월께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최경환 의원의 계획도 사실상 틀어졌다는 평가다. /이성주 기자

Focus 당선인에게 바란다

“한결같은 공약 민생경제 살리길”

▶ 이제휴씨(40·지역업·인후 1등)

“매번 오르는 물가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상인들이 기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입 대비 지출이 커지면 정말 막막해요”
인후동기에서 헬스장(레드짐)을 운영하는 이제휴씨(40)는 인터뷰에 앞서 지역업자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민생 경제 등을 외치는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뽑고 싶어 투표를 했다”면서 “선거철 반박 공약으로 이번에도 속고 싶지 않다. 문제는 경제다. 이번 당선인들은 한결 같이 공약했던 전북 경제 살리기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앞세워 창업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로만 창업을 독려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공급하라”며 “고객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오르는 물가에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겁난다. 물가 안정에도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김부겸 “뿌리없는 정치 안한다”

대구 정치 1번지인 수성갑에서 당선되며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은 14일 대권도전과 관련 “뿌리없는 정치는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는 질문에 ‘제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수성구민들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 자신을 앞세우고 싶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분한테 그런대권 도전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 대구시민과 수성구민은 제가 대구사람이자 정치인으로 뿌리를 내리고 실적을 내는 모습을 더 바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대권 후보가 없어(누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정치는 사실 상당히 위기인데, 그런 점에서 어떤 자체를 튼튼히하는 길을 먼저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김무성 새누리 대표직 사퇴에 측근들은 ‘불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제20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가운데 측근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초췌한 모습으로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했다.

그는 국회 출근길 모 언론사와 만나 “좀 쉬면 낫겠지 아직 약 기운이 남아있다”며 피곤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해단식 공개 발언을 통해 “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도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공천 과정에서 오만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당령 결집을 못하고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해단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친박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 주변에서는 ‘부글부글’ 한 분위기다. 당 대표로서 잡도 제대로 못

지고 13일 동안 당내 누구보다 열심히 지원 유세를 펼친 김 대표가 왜 ‘복박’을 쓰느냐는 불만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선거 당일인 13일 부산에서 투표를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과로로 입원 링거를 맞기도 했다.

김 대표는 밤새 병원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이날 오전 퇴원했다.

김 대표측 관계자는 “공천을 주도했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홍보를 담당했던 조동원 홍보본부장은 어디에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공천 끝나고 외국에 갔다고 불었고 조 본부장도 지금 외국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것 아니냐. 왜 김 대표만 뒤집어 써야 하냐”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한구 위원장은 공천이 끝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한국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원 본부장은 선거 당일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주 기자

도의회 운영위, 초등생 의회체험 활동 기회 제공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백경태)는 초등학생 의회체험 활동 독기에 나섰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주조촌초등학교 4학년생 150여명을 1개 학급씩 초청하는 ‘초등학생 도의회체험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날 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리고 직업인으로서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 학생들에게 직접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백경태 운영위원장은 “청소년 의회체험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의회를 홍보하고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키워준다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미래의 정치인의 꿈도 키워 볼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